

입주 한 달 남았는데... '올파포' 공사비 갈등에 또 중단

(올림픽파크포레온)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시공사 조정 등 기반시설 비용 놓고 갈등 이미 오른 공사비, 해결책 없어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 중단 예고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 서울에서도 조합과 시공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약이 아예 해지되는가 하면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었고,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까지 마친 올림픽파크포레온마저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엔 주변 도로와 조경 등을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시공사들과의 갈등이다. 공남공영과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기간 연장에 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전지원 기자

른 추가 공사비 170억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무려 1만2032세대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곳이다. 다음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까지 모두 끝낸 상태였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

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이 힘들어진다. 입주 지연은 물론 대출 등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준공 승인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초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과 함께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

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향후가 아니라 이미 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도 정비사업장 곳곳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황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현장에는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공사가 여러 차례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용산구 이촌동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이촌르엘(이촌현대)'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착공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며, 역시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은 작년 4월 이주·철거를 마쳤지만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여성보험 명가' 한화손보, 성장 가속도

팜테크연구소 통한 상품 개발부터 출산 특화 사내복지제도 운영까지 女 친화 기조로 3분기 순익 83% ↑

한화손해보험이 대내외적으로 '여성 친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 기업 문화에서부터 여성 친화 기조를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여성 전문 보험사' 타이틀을 굳혀겠다는 포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임직원 대상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여성 친화 문화를 내부적으로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손보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와 '임직원 임신, 출산 특화 지원' 사내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빠휴가'와 '임신지원휴가'는 법정제도보다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한다.

아빠휴가는 배우자 출산 이후 법정 기준 외 6일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한다. 총 16일의 휴가를 부여해 부모 모두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취학전후 돌봄 휴가로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최대 3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사내에는 전문보육기관 위탁을 통한 사내어린이집도 운영하

고 있다.

임직원의 임신·출산 특화 지원 제도로는 '맘 패키지(Mom's Package)'가 있다. 해당 제도로 임신부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업무지원 물품(손목보호대, 탄산장지크림, 임신부 전용 치약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지원 휴가도 제공해 기존 임직원에 안정적인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남녀 모든 임직원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사내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한화손보는 여성보험 명가(名家)로 통한다. 여성보험시장 선두주자로 지난해 금융업계 최초로 'LIFEP LUS팜테크연구소' 설립한 바 있다.

팜테크연구소는 리서치 분석기관에 의뢰해 '2030 여성 트렌드 분석'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상품 및 특약에도 반영하는 등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팜테크연구소의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 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품을 제공한다. 최근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배타적 사용권 4종을 추가했다. 신규 특약들은 올해 11월 선보일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팜테크연구소는 2030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보험 호조에 힘입어 한화손보의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올 3분기 별도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938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한 수치다.

SK증권은 한화손보의 올 3분기 순이익으로 100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준에 보장하지 않던 신규 담보를 출시하면서 선제적인 여성 보험 리딩에 나설 것"이라며 "타 보험사 대비 여성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인천 왕길동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국민은행, 실질 재해피해 고객 대상 대출·우대금리·상환연장 등 지원

KB국민은행은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

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청담 르엘' 조감도.

/롯데건설

우리은행,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레몬헬스케어와 '청구의 신' 제공

우리은행이 ICT 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 레몬헬스케어와 손잡고 우리WON뱅킹에서 실손보험을 간편히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의 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의 신'은 레몬헬스케어와 제휴

되어 있는 병원의 3년간 진료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고, 한번에 최대 10건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우리WON뱅킹 '청구의 신' 메뉴에서 'MY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병원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양사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제휴병원 진료 예약 ▲비대면 의료 제증명 서류 발급 등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편리한 보험 청구, 의료제증명 발급 등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건설, 강남 '청담 르엘' 전세대 완판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내놓은 '청담 르엘'이 완판을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이 적용된 '청담 르엘'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정당계약, 22일 예비당첨자 동호회 추첨을 거쳐 전세대 계약이 완료됐다.

'청담 르엘'은 지난 9월 20일 1순위 청약에서 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6717건이 접수돼 평균 66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전날 받은 특별공급에서도 64가구 모집에 2만7070건이 접수돼 31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지원 기자 jjw13@